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헌세계백화점 되나?

신세계 대구점 개점부터 위생 안전대책 미흡, 시민들 불안
대구시, 동구청, 소방서
현장 점검 않고 안전 외면

신세계대구점은 개점 때부터 위생과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연일 언론에서 지적돼 시민들은 불안해 하지만 대구시, 동구청, 소방서 그 어느 기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관공서가 아니라 백화점의 처분만 기다리는 일이다.

신세계대구점이 개점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개점 때보다는 한산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지난 22일 신세계대구점의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

지하주차장은 밤에 내린 비로 외벽 군데군 데에는 물이 세고, 주차장 바닥과 모서리의 먼지는 개점일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주차장 송풍기 앞을 살펴봤다. 길게 늘어진 송풍기 앞 그림은 (사진1)과 같이 시멘트와 석고가루가 쌓여 송풍기 바람을 타고 지하로 날리고 있었다. 사실은 한번도 청소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은 모른 채 이용하고 있다. 더구나 백화점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하 주차요원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했다. 주차요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켜 마땅

히 건강을 지켜 줘야한다. 행정당국은 백화점의 일일 공기질검사 일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하 2층부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다 옆 표지판을 뒤야보니 손가락에 먼지가 새까맣게 묻어나온다(사진2). 지하1층 신세계 푸드마켓을 돌며 음식전시대 테이블을 문지르니 하얀 먼지가 튀어 나왔다. 마침 빵을 사려던 시민에게 보여주니 백화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황급히 피해버렸다.

1층을 살펴보니 비상구는 안내표지판도 없고 서편 비상구는 6층까지 잠겨 있었다. 또 서편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으로 표시돼 있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비상구 한 쪽을 막아도 소방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소방관계자에게 문의하니 법률적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지하부터 지상 6층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하는 중앙을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빈 공간은 어느 층 할 것 없이 먼지덩어리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사진3)

지상 6층 서편 비상구 옆에 안내원이 있어, 왜 비상구가 잠겨 있느냐 물으니 공사 중이라고 했으며, 각 층마다 안내원이 있다고 했으나 기자가 살피고 올 때는 보이지 않았다.

비상구에는 손잡이가 없는 문도 있다. 지상 의류매장은 그런대로 자리가 잡혔지만 구석의 먼지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지상 9층 신세계에서 심혈을 기울인 '주라기공원' 옥상 공원은 낙상 방지용 유리 조임볼트가 몇 군데 빠지고 없어 불안해 보였고, 공원 화단의 전기줄은 마감되지 않은 노출 상



태로 방치됐으며, 주변 화단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모래와 함께 날려 관리원에게 청소해 줄 것을 말해도 어디인지를 몰랐다.

각 비상계단은 청소를 한 상태지만, 타 백화점의 계단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며 천장의 비상점검구는 없는 곳, 공사 중인 곳, 반쯤 닫힌 곳이 있었다.

지상 9층 북서쪽 비상구는 잠겨 있고, 지상 6층 커피숍과 같이 비상구는 마감이 덜 된 벽체에다가 통로에는 박스가 쌓여 있어 비상구의 개념을 잊고 있는 듯했다.

신세계의 안전대책의 수준을 알려 주고 있다.

대구시의 변명대로 준공과 쓰레기는 별개 라지만 옥상의 쓰레기는 사용 중에 배출한 쓰레기가 아닌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가 백화점 성업 중에도 방치 되고(사진4) 있다는 것은 대구시는 시민과는 별개의 행정기관

인듯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개점을 촉박하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곳이 많다. 차차 개선하고 있으며 공기정화시스템은 최상이다"라고 말했지만 개점한지 10일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계당국의 목인 하에 대구시민을 미세먼지로 몰아넣어 돈벌이에만 급급한 상술로 볼 수 밖에 없다.

신천동 K 씨는 "대구시는 공사장 미세먼지 단속을 수차례 실시했다. 넓은 공간이 아닌 폐쇄된 공간에서 대구시민 100여만 명이 왕래해도 검사나 단속 한번 없었다는 것은 봐주기 식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논공의 L 씨는 "백화점도 아니다. 애들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눈도 아프고 목도 아파 며칠간 고생했다. 어떻게 개점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여은 김진희 기자



청송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인증된다

유네스코 이사회 최종 인증

청송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는 청송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권고했다.

그동안 도와 청송군은 유네스코청송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을 펼쳐왔다. 청송지질공원은 내년 4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인증된다.

청송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이 확실시 된 배경으로는 뛰어난 지질명소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왕산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큰 규모의 두꺼운 화산재층으로 구성돼 있다.청송백자 원료산지인 범수도석은 세계지질공원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지질과 역사, 문화가 잘 어우러진 명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매우 희귀한 광물(Li-bearing tosedite)이 발견돼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많은 지질명소들 중 으뜸은 바로 꽃돌로 불리는 청송 구과상 유문암이다.

꽃무늬를 보이는 암석인 구상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출되지만 다양한 꽃무늬의 크기와 형태 및 심미적 가치는 청송의 꽃돌이 으뜸이다.

특히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자연보호프로그램으로 현재 33개국의 120개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주도가 유일하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번 청송의 예비인증으로 2개의 세계지질공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개 국가지질공원과 8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네스코 청송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유한 도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질공원을 연계한 교육·관광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2017년을 알리는 해운대 닭 조형물

25일 오후 2017년 정유년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닭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방문

피해현황·복구계획 듣고 복구활동지원금을 전달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23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용규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이 함께 했다.

김 의장 일행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한 뒤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어 화재대책본부를 방문해 윤순영 중구청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을 듣고 복구활동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상인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서문시장이 하루 빨리 복구되도록 이웃인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전국 첫 고속도 본선형 하이패스 나들목 '유천 IC' 착공 5년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쯤은, 문화로 소풍가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 할인

CEK,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도서관 대안지원

전국 도서관 대안지원

공연 관람 할인

전국 공연 관람 할인

문화재 관람 할인

문화재 관람 할인

전시 관람 할인

전국 전시 관람 할인

스포츠 할인

스포츠 할인

문화융성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시, 노인활동비 내년부터 월 22만원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청 누리집 게재 최저임금 6470원 확정 시행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 등 6개 분야 43건을 정리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식누리집에 게시했다.

23일 게시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이용요금, 민원·행정, 문화·체육,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어르신 성취감 향상과 소득 보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활동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10건이 달라진다.

지방세·이용요금 분야는 납세의무자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를 허용하는 등 15건이 달라진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8종의 자격·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2건이 달라진다.

문화·체육 분야는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금액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3건이 달라진다.

재난·안전 분야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시 발생하는 회원들의 생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를 통한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는 등 6건이 달라진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최저임금을 2016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확정하는 등 7건이 달라진다.

대구시, 청년정책TF 1년 운영성과 '긍정적' 자평

대구시가 올해를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핵심 추진체계로 구성된 청년정책추진단(이하 TF)이 지난 1년간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임시 전담조직인 청년정책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격월마다 개최돼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책설명을 통해 청년정책 연구모임인 '청년 ON'의 정책제안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구시는 체계적이고 방향성 있는 청년 시책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TF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의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달성에 필요한 주요 청년사업을 선정·관리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청년 상시일자리 1만1207개를 창출함으로써 목표 1만개 대비 112%를 달성했으며 청년 창업 310개사를 육성해 목표 240개사 대비 129%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혁신 프로젝트(3년간 국비 150억원)를 추진하고 산단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청년 1명 더 채용하기 캠페인',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노력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구상상창조경제단지로 확대·이전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했으며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조성과 투자를 진행해 올해만 총 212억 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청년의 기(氣)를 살리기 위한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에 시민과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이달 중 확정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예술가 지원은 올해 목표한 75명을 넘어 79명을 지원했으며 청년예술창작공간, 대구예술창작촌, 공연플렉스파크 등 3대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은 예정대로 공사계약을 완료하거나 용역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진희 기자



대구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열어

구조구급 분야 발전 방향 모색 올해 6번째 개최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22일 오후 소방안전본부 4층 회의실에서 '2016년 대구광역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남화영 본

부장을 위원장으로 영남대학교 응급의학과 도병수 교수 및 대구광역시 수의사회 임재현 회장 등 응급의료 및 긴급구조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구조·구급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2017년도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국민 100%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 국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 등 시민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삼아 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화영 본부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구소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조·구급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됐으며 올해로 6회째 개최됐다.

최윤희 기자

대구시 "매주 수요일은 닭·오리 먹는 날"

대구상공회의소와 농협중앙회 대구본부도 소비촉진에 동참

대구시는 23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청 구내식당에서 대구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대구축협, 대한양계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 및 한국의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가 참가한 가운데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사에 참가한 경제, 생산자 및 외식업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대구시는 매주 수요일을 닭, 오리 먹는 날로 정해 관련 축산물의 소비

가 늘어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으며 대구상공회의소와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도 대구시의 닭, 오리 소비촉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지역의 경제단체, 생산자 단체가 합심해 닭, 오리 소비촉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축산농가와 관련 외식업 종사자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희 기자

대구음식 알리미 '대구식객단' 38명 모집

2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음식관련 개인 블로그 운영자

대구시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대구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맛집 발굴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구식객단'을 모집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10일간 대구식객단 활동에 참여

할 인원 38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대구시민 가운데 음식관련 개인 블로그 운영자이고 신청방법은 음식누리집 대구푸드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8기 대구식객단은 70명을 위촉해 운영하며 제7기 식객단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32명을 우선 선발하고 38명을 신규로 선발한다. 대구식객단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구음식 홍보와 맛집 발



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을 대구음식누리집 대구푸드에 입력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구음식을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게 된다.

최윤희 기자

대구 청소년! 대구에서 즐겨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내년 1월 13일까지 접수

대구시는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2017년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역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

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도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4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며, 2017년 1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 분야는 청소년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진로·직업' 및 '문화·예술'과 더불어, 청소년과 가족의 관계 회복 및 인성함양을 위한 '가족친화 및 인성' 분야와 청소년의 나눔과 도전의식 함양을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로 도입된 '모험 봉사' 분야로 선정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최윤희 기자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50만 시민들이 매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수공정 고도화사업 최종, 노후된 상수도관 적기 교체,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 등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한 시책
옥상물탱크 철거 지원, 수도미터 현장방문 가능시험, 옥내 급수관 무료누수탐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 시행 등을 통하여 시민 행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소중한 자원입니다.

대구 수돗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한 대구 수돗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서구, 대기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악취측정기, CCTV 등 설치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관리

서구청은 지난 22일 오후 평생학습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기업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대기정보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서구청은 염색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에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구성된 복합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 사업비 7억3000만 원을 투입해 최근 완료했다.

구축 장비로는 공단내의 신광방 역할을 담당할 악취측정기 18대와 서구 전체 공장지역을 24시간 연기발생 등 악취징후를 감시할 고성능 CCTV 2대, 풍향, 풍속, 습도, 온도 등 기상자료 수집을 위한 기상측정기 2대를 설치했다.

또한, 악취 피해 지역 예측과 악취발생시 대상 지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악취예측모델링시스템, 기업체 및 주민에게 악취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악취 측정과 농도가 높은 지역의 시료를 직접 측정과 채취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악취측정기 및 시료포집기도 구입해 그동안 발생원 불명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민원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구청은 그동안 악취 등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염색산업단지 악취해결을 위해 대구시 경제부

시장, 서구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및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장과 참여기업체 대표 15명이 참석해 악취자율감 감협약을 가졌다.

류한국 구청장은 "KTX역사 건립 추진과 서대구산업단지 및 염색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연계한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대기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서구가 친환경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남구, '사회서비스' 지원 발굴 최우수기관 선정

남구는 올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8개 구·군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사회서비스 지원발굴을 위한 노력 △이용자 및 제공기관 품질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례 △기타 언론보도 등 사업추진 전반 등 7개 부문이다.

이중 남구는 부정보급 방식과 서비스 이용자 품질관리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뽑혔다. 박홍규 기자

'대구 가족친화 모범사례' 달성군시설공단 기관 우수상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지방공용노동청이 주관하는 '2016년 대구 가족친화 모범사례 공모'에서 기관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3주간) 대구지역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활성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 대구지역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8개 기관·기업을 수상하게 됐다.

공단은 '우리 아빠·엄마 일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직원 가족초대의 날 행사를 추진했으며, 공단 시설 투어 및 체험을 통해 직원 가족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공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기관 전수를 받아 두배의 기쁨을 누렸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수성구는 지난 22일 노보텔에서 개최된 대구일가정양립실천포럼에서 여성가족부 주관 '2016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받았다.

또,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주최 '대구 가족친화 모범사례 공모전'에 응모한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생생투어'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사업이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수성구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성구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고서'를 제작 한 바 있다.

또, 유연근무제, 남성 육아휴직장려, 워킹대디 가족사랑교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높이 평가됐다. 이상하 기자

달서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이어 식품위생분야 2관왕 쾌거

달서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16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 표창을 받게 됨으로써 지난 1일 식중독 예방 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식품위생분야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평가는 전국 17

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반 마련,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건강한 식단 실천 등 5개 평가 지표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달서구는 그 동안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깨끗한 운동을 지속 전개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식중독 예방 취약시설 관리, 음식점 스마일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특히,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사전 운영,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요리강좌,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조기형성을 위한 뮤지컬 공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위생관련단체, 영업자, 지역주민과 공간대를 형성해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과 품격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우 기자

서문시장 피해상인 1차 생계비 지급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을 위한 1차 생활안정 생계비를 지급한다.

25일 중구청에 따르면 서문시장화재피해상인 생계비를 반영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중구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해 26일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1차로 화재 피해상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 생계비는 '대구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의 지원기준에 의거해 지급된다.

특히, 지난 22일까지 신청한 598가구 중 구비서류를 갖춘 551가구에 4억90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영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생활안정 생계비가 피해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수성구,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

범어영재어린이집 선정



수성구는 지난 22일 오후 회의실에서 영·유아를 둔 수성구 직원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 5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

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자모집 공모·심사를 실시, 구청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범어영재어린이집을 최종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17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했으며, 현재 어린이집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두 딸을 둔 김민수 주무관은 "어린이집이 구청과 가까이 있어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마음이 놓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재현 기자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식 가져



남구청은 지난 23일 오전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1992년에 지어진 (구)성명파출소를 관리전환한 후 리모델링한 것으로, 구비 6000만 원, 삼성생명 지원금 4000만 원이 소요됐다.

대지면적 115.7㎡, 건축연면적 120.42㎡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도서관과 상담실, 2층에는 수유실과 다목적실, 놀이방, 프로그램실 등이 배치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지역 내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곳으로 아이의 놀이방 역할은 물론 학습과 독서, 놀이, 예체능 취미활동 등 품앗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미술놀이와 유아 음악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영, 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개소식에는 임병헌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의장, 여성가족부, 대구시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삼성생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박홍규 기자

flower
부여하여 달서꽃밭이다

대구의 뿌리, 달성의 문화

살의 영양분이 듬뿍!
인생을 즐기는 또 하나의 활력소, 달구벌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구의 뿌리 달성의 문화관광지에서 삶의 참 맛을 느껴 보십시오

대구광역시달성군
DAEGU CITY DALSEONG GUN

달성으로 오세요

달성군 구지면 폐기물 불법 객토

농작물과 주변 토양오염 우려



달성군 구지면 정리 논에서 폐기물이 불법 객토되고 있어 토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달성군 구지면 정리 대구교육낙동강수원원 맞은편 200여 평 땅에 페콘크리트(페콘)와 아스콘 덩어리를 잘게 부순 폐기

물이 불법으로 객토(땅의 토질을 높이기 위해 논밭에 흙을 넣는 과정)되고 있어 주변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폐기물은 구지면 D환경업체에서 반출된 것으로 15톤 트럭 14대~20대 정도다. 이와 관련 땅 지주는 "토질을 개량해 이모작 할려고 했다. 불법인줄 몰랐다. 나락(배)만 가지고는 수익이 나지 않아 객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객토는 기존 토질보다 나은 양질의 흙으로 해야 하는데 폐기물을 순환골재와 모래처럼 작게 부서 흙과 함께 매립하고 있어 농작물 오염을 물론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땅 지주는 "면에 허락을 받고 성토를 하고 있다. 폐기물을 눈에 매립한 것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달성군 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의 농작물 오염과 토양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폐기물 불법매립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

특히 폐기물을 반출한 D업체의 경우 폐기물 반출(순환골재 포함)을 할 때 객토나 성토로 이뤄지는 논밭에는 절대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달성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다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객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찰청 평가 1위, 상동지구대의 하루

하루 12시간 격무, 태권도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 출신 등 우수인력 배치



대통령 탄핵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지난 20일 저녁 8시께 대구시 수성구 상동지구대에는 20여 명의 교대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8시 30분 교대 근무자들이 교대 후 잠시 앉을 겨를도 없이 신고가 들어왔다. 최명희 경위(조는 불법오락실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는 신고에 따라 출동했다. 하지만 정작 신고자는 불법도박 사실보다는 '누가 날 해치러 한다'는 등 횡설수설을 했다.

현장에서 신고자를 귀가조치시킨 최 경위는 "불법도박의 경우 돈을 잃은 신고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신고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근 다양한 경력의 인재들이 경찰에 지원하고 있다. 상동지구대 조설 순경도 그 중 한 명.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조 순경은 경찰청이 11년만에 실시한 무도 특채에서 당당히 뽑힌 재원이다.

힘하다면 힘하다고 할 수 있는 지구대 업무에 있어 여자 경찰의 장점을 꼽아달라는 말에 조 순경은 "남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성범죄와 같은 사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 부모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여성이 있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알몸으로, 흉기로 손목을 그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면서 "같은 여성인 제가 혼자 들어가 설득한 끝에 병원까지 함께 가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숨을 돌리나 싶던 지구대에 오후 8시 50분 지구대 전화벨이 울렸다. "누가 보증을 서달라며 대문 앞에서 둔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전화를 받은 김도훈 경사(조가 즉각 출동에 나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복 같은 방범장비를 챙기고 현장에 도착한 김 경사(조는 긴장한 채 주변탐색에 나섰다.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 경사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번도 그런 케이스 같다"라면서 "비록 헛걸음을 했지만 그래도 별다른 불상사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4교대를 하는 지구대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12시간, 오후 8시부터 12시간 일을 하는 주야간 근무체제로 일한다. 주간1번, 야간 1번씩 일하고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근무를 하

전국 첫 고속도 본선형 하이패스 나들목 '유천 IC' 착공

내년 유천 IC가 개통되면 월배신도시와 대곡지구, 상인지구, 성서산업단지 등 바로 중북내륙고속도로 지선 직접 진출입 가능

시의회 박상태 부의장,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 조성제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과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경계에 위치한 유천 하이패스 IC는 중북내륙고속도로지선에 직접 연결되는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본선형 하이패스 IC로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유천 하이패스 IC 설치에 위해 지난해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며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

내년 유천 IC가 개통되면 월배신도시와 대곡지구, 상인지구, 성서산업단지 등 대구 서남

부지역에서는 기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중북내륙고속도로지선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지정체를 보이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남대구IC~서대구IC 구간의 혼잡 완화는 물론 우회거리 단축으로 대구 서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고속도로 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으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업해 내년 하반기 착공 없이 유천 IC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6일 오후 2시 달서구 대전동 월천공원에서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 윤재옥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



대구 풋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타올라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 중앙로 인근서 8차 시국대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풋볼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타올랐다. 대구 8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은 이날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지구에서 '박근혜 퇴진 8차 대구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인용, 새누리당 해체 등을 촉구했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열린 만민공동회 형식의 자유발언 시간에는 알바노조 대구지부장과 창원, 구직자 등이 차례로 나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친재벌 정책

과 경제 실패를 집중 성토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이라는 정영주(55·여) 씨는 "기초수급생활자인 나는 이명박 정부때는 친정집에 얹혀 사니 월세가 안간다고 기초생활비를 깎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인건비가 올라 수입이 늘었다고 또 깎았다"며 "이렇듯 나를 다 까발렸으니 (박근혜) 당신도 다 까발리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락콘서트와 민주노총 참가자들의 공연에 이어 중앙로-반월당-명덕터거리-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김진희 기자**

부부싸움 참변... 아내살해범 긴급체포

대구남부署, 아내 흉기 찔러 살해한 이 모 씨 긴급체포

대구 남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 모(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1분께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내 김 모(36·여) 씨의 목 부위를 주방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규 기자**

이 씨는 경찰에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죽고싶다'고 말해 찾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씨는 이미 과다출혈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홍규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 상습 차량털이범 30대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털이와 차량절도를 일삼은 혐의(상습 절도)로 조 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20일 달서구 송현동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치는 등 올해 8월 중순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9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심야시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우 기자**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에"... 안전제일 입간판 논란

수성구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조롱 논란



대구 수성구의 한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투의 '안전제일' 입간판이 들어서 노조가 항의에 나섰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사고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잔다'는 내용을 담은 공사장 앞 입간판 내용을 규탄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입간판에는 "공사 관계자 여러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노동안전, 생명권을 중용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아니라 교사나 변호사한테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쓸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류재현 기자**

대구희망원 비자금 폭로 협박 1억 뜯은 직원 집행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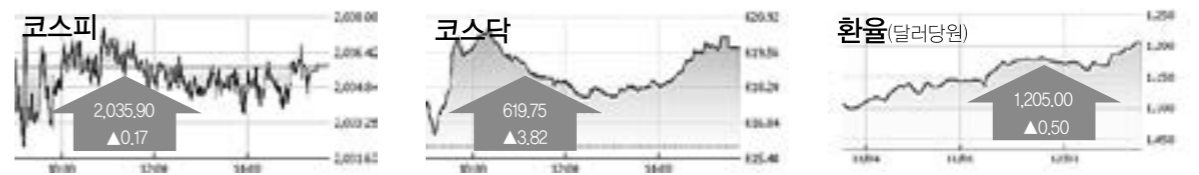
대구지법, 공갈 등 혐의 징역 1년 징유 2년 선고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우 부장판사는 23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벌이 모(5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시립희망원 회계책임자였던 이 씨는 2014년 7월께 피복 구입 비리로 해고당하자 당시 총괄원장장신부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등을 받아낸 혐의다.

이상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금액이 많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대구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성과 돋보여

대구시, '2016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오늘 개최

대구시는 26일 오후 시청별관 대강당(북구 산격동)에서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의 회 및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사회적경제 추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6 대구 사회적경제 수고했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비롯해, 올 한해 수고한 기업들의 자랑거리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

대구시는 올 한해 '민(民) 주도 사회적경제 기틀마련', '시민 친화적 사회적경제 환경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질적·양적 성장지원'의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서서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해 믿음과 신뢰를 통한 소통과 협치 행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사회

적경제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졌으며, 대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올 한해 추진한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정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모델인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의'가 주축이 돼 '대구 사회적경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기업의 설립·경영·마케팅 등 원스톱 성장지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개소했으며,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도 시행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대학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등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리더 185명을 양성했고, 박람회와 중고생 캠프 등을 통한 시민홍보 및 가치 확산, 쪽방촌지원, 서문시장과 함께하는 장터, 김장나눔 행사, 초등학교과사수목 등 사회적경제가 시민생활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율 및 착한 소비 확대를 10월말 현재 공공구매액이 88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47억 원 대비 2배수에 가까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115개(사회적기업 10, 협동조합 100,

마을기업 5)를 신규로 설립해 양적성장도 촉진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지역의 청년 마을기업인 '내 마음은 콩밭 협동조합(대표 서민정)'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작년에 이어 대구마을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상임 공동대표 (재)다솜이재단 이사장 안재웅,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에서 주관한 '2016 제3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사회적기업상' 부문에서는 대구시 사회적기업인 ㈜청소하는마을(대표 박정옥)이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를 수상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대구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매여건을 개선하고, 전문화된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민(民) 주도의 사회적경제 기틀을 마련해 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경제 도시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일래 기자



롯데백 대구점, 아이의 꿈 위한 직업체험관

5가지의 직업 미리 체험

롯데백화점 대구점 7층 롯데문화홀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대구 지역 최초로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진행해 우리 아이의 장래 꿈을 위한 5가지의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아기들을 건강하게 안길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병원 신생아실', 생명의 소중함과 투철한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119 응급구조대', 비행기 안에서 기내안전 및 고객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승무원 교육센터', 다양한 증거를 분석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 'C.S.I 과학수사대' 등 총 5가지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다.

7층 문화홀 데스크에서는 1개의 직업 체험당 2000원 현금으로 당일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1개의 직업 체험 시 15분 소요된다. 이상하 기자



대구시, 화훼 소비촉진 두 팔 걷어

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소비 꽃 생활화 촉진 홍보행사 마련

대구시는 (사)한국화원협회대구지회, 대구 꽃박람회추진위원회와 함께 23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꽃 생활화 촉진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꽃 소비금액이 1만 4000원 수준이며, 꽃 소비가 많은 노르웨이(16만 원), 스위스(15만 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85% 이상이 경조사용·선물용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화훼 소비구조가 청탁방지법 이후 꽃 소비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번 홍보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산업을 돕기 위해 연말 연시를 맞아 꽃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꽃 생활화 방법을 담은 홍보 전단과 꽃, 꽃병을 나눠주며 꽃 생활화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꽃 델꼬가~' 피켓들기 및 SNS 인증샷 이벤트 등에 참여한 시민에게 꽃과 화병을 증정해 행사장을 찾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꽃 생활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들이 꽃 한다발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한 송이용 미니화병과 벽에 붙이는 화병을 나눠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꽃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여은 기자

연말을 맞아 동성로를 찾은 직장인 이 모 씨는 "오전에 불쾌한 일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꽃병을 사무실 책상위에 두고 자주 꽃을 보겠다"고 말했으며, 또 친구들과 놀러온 여학생들은 행사장에 준비된 꽃 생활화 관련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며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청 로비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기프트(gift) 화훼상품 전시회를 열었다. 꽃이 청탁선물로 오인돼 경조사 시에도 꽃을 선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아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동료 간에 꽃 선물을 주고받는 등 꽃 소비 활성화에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에는 기업체,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꽃을 배달하고 관리해주는 '1테이블 1플라워' 사업, 생활화웨디자 디자인 경진대회, 꽃박람회 등 건전한 소비문화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일래 기자

조달청, 중소기업 판로개척 큰 힘 되길...

대구·경북지역 6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청은 지난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5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제품에는 △주식회사 비에스지(대표자 홍종운)의 '농약집투 안전보호복' △화성산업사(대표자 여신동)의 '플랫폼트럭' △에이펙스인텍

(대표자 김권진)의 '광성능, 방진, 방수, 방열 성능이 향상된 LED 투광 조명' △재진가모등 주식회사(대표자 이성형)의 'LED 등기구' △주식회사 디케이(대표자 이상원)의 '태양광발전장치' △대한기전 주식회사(대표자 김중찬)의 '성능수준 기반의 잔존수명 예측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수배전반' 등 6개 제품이다.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김일만 기자

"주요장치 국산화 개발 최선 다할 것"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집전장치용 부품 국산화 성공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수입부품 국산화, 단종부품 수급 및 노후설비 개선 등 현안사항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3호선 전동차 집전장치용 부품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호선의 경우 일본 히타치사 제품으로 부품 예비량 수급에 애로가 있어 국산화 절실한 실정으로, 공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3호선 전동차용 집전장치용 주요부품(주수판, 고체윤활제, 황동볼트)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열차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2016년도 연구개발을 통



해 5억50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공사 홍승환 사장은 "앞으로도 주요장치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로 자체 기술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일래 기자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가는 Value Creator



www.kdit.co.kr

소중한 중소기업의 희망, 신용보증기금이 동행합니다

I'm C.E.O with K-DIT

신용보증기금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뤄지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겠습니다

K-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포항시 5개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경진대회 개최

KAIST 그리노이드팀 대상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와 포스텍은 지난 2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5개 과기특성화대학 학생, 엔젤투자재단, 벤처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포스텍,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별 4개팀 총 20개팀 130여 명이 지원했으며 대학별 예선심사를 거쳐 올라온 11개팀이 본선대회에 참여했다.

KAIST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친환경 농업용 로봇', '노트빌리지', 포스텍 학생들은 '소보로(소리를 보는 톤로)서비스, 스콘캡' 등을 주제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과학 교보재를 위한 고무동력 헬리콥터, 램바이캠, 라즈베리파이 기반 착한 현미경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 대상은 KAIST 그리노이드팀의 '다기능 정밀 농업용 로봇을 이용한 친환경유기농 작물 재배를 위한 Total Solution 제공'이 선정됐다.

KAIST의 Victures팀이 '이미지 기반 동영상 콘텐츠 제공서비스', 포스텍의 Organprint팀이 '생체 모사3D Liver-on-a-chip 제작'

우수투자상은 포스텍의 소보로팀이 '음성인식을 이용한 웹 기반 실시간 자동 자막 전송 서비스'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1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배중년 KAIST 산학협력단장은 "과학기술은 헌법정신에 따라 지속가능한 연구 개발돼

야하고 연구개발로 사업화시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5개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창업경진대회가 포항에서 개최돼 혁신적인 창업기를 배출해 포항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훈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읍면동-R&BD기관 자매결연식'에 참석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6일 오후 대의협력실에서 열리는 '불국 숙박협회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2016 포항시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개최

새마을운동 읍면동 사업 평가, 송도동 최우수 수상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시새마을회가 주관하는 2016 포항시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가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포항'을 주제로 23일 시청 대강홀에서 새마을가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로, 활동성과 영상보고에 이어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지도자와 단체, 읍면동 등에 대한 표창수여, 새출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앞서 열린 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수상한 포상 전달과 우수 지도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읍면동 평가 우수 시상도 이어졌다.

한 해 간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새마을사업 평가 최우수 읍면동은 송도동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사업비 300만 원이 쥐졌다. 우수상에는 동해면, 대이동, 장려사에 상대동, 해도동, 청하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포항시 새마을대상으로 근면상에는 심정섭 대송면 협의회장, 자조상에 김화자 오천읍부녀회장, 협동상에 김용수 새마을교통봉사대장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새마을훈장, 국무총리, 행정부장관,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표창 등이 수여돼 새마을운동 발전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날 포항시새마을대상 근면상을 수상한 대송면 심정섭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새마을 훈장,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올해는 다른 해보다 포상이 많은 것은 우리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지도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훈 기자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2017년 1573억 원 지원

올해 대비 450억 원 증액으로 200여 기업체 혜택 늘어날 듯

경주시는 2017년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157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2017년에도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2016년 대비 융자추진규모를 450억 원 증액하고 중소기업자금난 해소에 앞장 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체불임금과 미결제 대금 등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자금으로서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 업

체 등 시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5억 원까지 융자 지원 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보전하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신청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지원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2017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계획'은 시 누리집(분야별정보/산업경제/기업지원/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내년 2월부터 전기요금 등 지원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전기요금만 매월 2500원 지원

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로 2009년 7월부터 주거용 전기요금 2500원, TV수신료 2500원 매월 5000원을 전 세대에 지원해 왔으나,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전기요금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세대(2016년 기준 : 전기요금 12만9000세대, TV수신료 11만1000세대)에 지원해 오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3만1000세대에게 매

월 전기요금 25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정사유로는 그동안 방폐장특별지원금 원금 소진과 이자감소, 방폐물 반입수수료 감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해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행대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년 72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반해, 수입재원은 감소해 당장 2017년부터는 부족해지고 2018년 이후에는 매년 50여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로 시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을 재원부족으로 축소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 축전 노점상 단속 돌입

잠정 허용구역 폐쇄로 기업형 포장마차 근절 나서



포항시는 제19회 호미곶 한민족 축전을 기업형 포장마차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축전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포항시는 불법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점상인들을 방지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구역을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운영

영해 왔다.

하지만 외부기업형 노점상들이 구역을 독차지해 전형을 일삼는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번 호미곶 해맞이 축전부터 잠정 허용 구역을 폐쇄하는 등 기업형 포장마차를 일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연인원 132명(공무원 823명, 용역사 50명)으로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하고 견인차, 화물차를 상시 대기해 행사장 일원 점상인들을 원천 봉쇄하고 진입돼 있는 노점상들을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에는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도로와 공원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불법영업용을 일삼아온 노점상 47개소에 대해 공무원 110명, 화물차량, 견인차량을 동원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날 22일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점상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요령, 근무위치, 불법노점상 등 제반 사항에 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노점상 단속태세에 돌입했다. 전세훈 기자

경주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온맵시' 캠페인



경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앞마당에서 그린경주21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온(溫)맵시 캠페인'을 펼쳤다.

'온(溫)맵시 캠페인'은 편안하고 따뜻한 옷

차림을 통해 사무실과 집안 등의 실내 난방온도를 낮춤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녹색생활실천운동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갑을 배부하며, 내복입기, 모자·목도리·덧신 등 소품활용하기, 실내온도 18-20℃ 유지하기 등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을 알리고,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서명을 통해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시는 신 기후체제(파리협정)에서 비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린경주21협의회와 다양한 실천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윤용찬 기자

2천년 역사가 살아숨쉬는 경주!

국제회의 도시 경주,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에 서다!

지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는 수 많은 유물과 역사적 유적들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현재는 21세기 황금해권 경제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동삼일역 교통요충지로서 불류, 이등역 중심지이며, 저렴한 비용의 복지수급과 풍부한 용수, 인프라가 완비된 산업기반을 기초로 동북아 교역의 무한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벨트도시로 오세요!

영덕군, 상주-영덕 고속도로 드디어 열리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6일 오후 푸르미작업장(죽변면 소재)에서 열리는 '푸르미작업장 한마음 송년행사'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6일 군청회의실에서 실·소·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고속도로 개통 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

울진군, 귀농·귀촌인 성공 정착사례 발표회 가자



울진군은 지난 23일 근남면 천황농업교육장에서 귀농·귀촌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에게 농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삶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2016 귀농·귀촌인 성공정착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진군에 귀농·귀촌해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농·귀촌인 10인의 귀농·귀촌 준비과정과 예비 귀농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현재 울진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김형삼 기자

상주 외남골 꽃감축제서 영덕대게축제 적극 홍보



영덕군은 지난 22일 상주에서 개최한 대표적인 특산물 축제인 '상주 외남골 꽃감축제'에 참여해 제20주년을 맞는 2017년 영덕대게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상주와 영덕은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상당한 먼 거리였지만 지난 23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면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영덕군과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상주시민들에게 영덕대게 시식을 통해 진정한 대게의 맛을 보여주고 '가장 가까운 바다! 맛있는 대게가 넘치는 영덕'을 홍보했다.

영덕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주변 시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권 기자

지난 23일 의성휴게소서 개통식 열려, 상주시와 협력사업 구체적 논의

지난 23일 오후 상주-영덕 고속도로 의성휴게소에서 개통식이 열렸고 오후 6시부터는 차량 통행이 시작됐다. 강호인 국토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자체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통한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중부내

륙고속도로 상주 분기점에서 시작돼 중앙고속도로 안동분기점을 거쳐 영덕까지 총연장 107.6km에 이르며 2조7513억 원의 예산으로 2009년 12월 착공했다.

3개 휴게소(의성, 점곡, 청송)와 2개 분기점(상주, 안동), 7개 나들목(동상주, 서의성, 북의성, 동안동, 청송, 동청송·영양, 영덕) 등의 주요시설물이 있어 통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국도34번 국도 이용시 159.71km보다 52.1km 단축되고, 시간 상으로는 145분에서 65분으로 운행이 가능해 80분 이상이 단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거리·시간상 단축으로 연

간 1701억 원의 공용편익(경제적효과 1511억, 환경피해 190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덕군에서는 이희진 영덕군수 등 60여 명이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속도로 개통 축하를 위해 개통식에 참석했다.

또한, 개통식 전 상주시 대표 음식점인 명실상감에서 오찬을 하며 더 가까워진 상주와 영덕의 거리를 체험하고 두 지역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상주와 영덕은 특히 안동으로 향하는 34번 국도가 좁고 협해 왕래가 드물었다. 하지만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거리가 52.1km, 통행시간은 무려 1시간으로 단축돼 앞

로 두 지역 간의 교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덕군과 상주시는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상주꽃감과 영덕대게 등 두 지역의 지역농수특산물 교차홍보', '농수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 등 개통에 따른 협력 사업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역사적인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600여 명의 공직자는 창의와 열정으로 고속도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 또한,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 상생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울진군, 청렴다짐 결의식 열려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

울진군은 지난 23일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직원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다짐 결의식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참석한 공직자 모두가 청렴결의 선서를 하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

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 경상대학교 한상덕 교수를 초청해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해 참석한 공직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울진군은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식이 어느 때 보다 높여 요구 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삼 기자



영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큰 성과 올려

자동차세 납부 홍보 캠페인 전개로 납세의지 다져

영천시는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올 한해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보다 40%이상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 금액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변호판 영치, 압류 재산의 강제 집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강화한 결과이다.

2017년부터는 '집요한 추적이 최대의 징수'라는 각오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지방세 체납과 연계해 변호판 영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징수촉탁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세정과 직원들은 23일 시청오거리

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2만6787건, 42억9300만 원) 납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건전한 납세의식을 알리고 동시에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체납세 사전 근절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영천시 세정과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 제도(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납부, CD/ATM 기기를 활용한 지방세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1899-6115))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율을 높이는 등 영천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변호판 영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다양한 납세편의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납부관련 문의사항은 영천시 세정과(054-330-62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만 기자

영천시립도서관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 24일 어린이뮤지컬 '행복베이커리' 공연 가자



영천시가 주최하고 극단 선물이 공연한 어린이뮤지컬 '행복베이커리'가 지난 24일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공연은 단순히 보기만하는 관람을 뛰어넘어 어린이들이 빵만죽을 통해 촉감을 느끼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는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공연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공연한 극단 선물은 올해 아시테지(국제 아동 청소년 연극 협회 한국본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에 출품작이 당선되기도 한 전문 공연팀으로, 한 시간 내내 관객들에게 흥미와 웃음을 선사했다.

김기숙 인재양성과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공연을 마련했으며, 이번 겨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온가족이 도서관에서 따뜻한 마음을 채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영천시 공고 제2016-1263 호

영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안" 공람공고

영천시 화룡동 88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도시계획과(T.054-330-6321, fax. 054-330-63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3.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안"
4.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안" 도서 등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안"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신설	소로	3	379	6	국지 도로	90	화룡동 887번지	332-8번지	일반 도로	-	-

나.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로3-379	· 도선신설 B=6m, L=90m	철도확장에 따른 우회 방지를 통한 농경지 및 교향의 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선 신설

6. 주민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처 :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영천시 시청로 16(문의동, 영천시청))
 - 제출방법 : 서면 제출(서식 열람장소 비치) 등
7. 기 타 : 기타 세부사항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음.

2016. 12. 26.

영 천 시 장

대구광역시 물 절약 캠페인

지구의 생명, 물을 지켜주세요

소중한 물~!! 물을 아껴 쓰는 생활습관을 실천합시다



경산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기울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단 운영

경산시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원열 부시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사업부서·담당·

읍면동별로 포스터·리플렛을 배부하고 현수막,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점 발굴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보호대상 자격 중지자,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맞춤형 복지담당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며, 발굴된 대

상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신청 안내,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지원을 연계 추진 중이며,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지속 관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기간 내 발굴인원은 1269명이며, 내역을 보면 단순안내 101명, 공공지원 28명, 민간지원 998명, 지원 절차 진행 중 139명 등이다. 이은진 기자

상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신청 안내,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지원을 연계 추진 중이며,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지속 관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기간 내 발굴인원은 1269명이며, 내역을 보면 단순안내 101명, 공공지원 28명, 민간지원 998명, 지원 절차 진행 중 139명 등이다. 이은진 기자



최영조 경산시장은 26일 오전 남산면 안심리 소재 '남산 성남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6일 칠곡군 왜관읍회의실에서 열리는 '김종삼 왜관읍장 명예 퇴임식'에 참석한다.



한국도로공사 캐릭터 길통이·차로차로 탄생

한국도로공사가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 '길통이'와 '차로차로'를 선보였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길통이'와 '차로차로'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교통안전의식 개선 및 첨단미래도로 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길통이'는 한국의 전통 영웅 홍길동을 모티브로 해 친근하고 대중적이며 강인한 믿음을 주는 이미지로 제작됐다.

소셜 속 홍길동이 빈자들을 위한 의적이었던 것처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위에서 재난, 사고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는 친구라는 뜻도 담고 있다.

'차로차로'는 '길통이'와 함께 도로를 누비는 귀여운 짝꿍으로 첨단도로를 달리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스마트톨링, 원톨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로 미래성장을 추구하는 도로공사의 의지가 녹아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뒤틀려진 안전피착음 캠페인',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문구나 방송 광고 등이 다소 자극적이고 무겁다는 지적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1년여의 제작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통하게 한다는 의지를 담은 부드럽지만 강인한 이미지의 '길통이'와 그의 귀여운 짝꿍 '차로차로'가 탄생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캐릭터 탄생을 계기로 국민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공사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길통이'와 '차로차로'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구미시 역대 원평1동장 초청 간담회 열어

지역발전방안 모색 위한 선배 공무원 고견청취



구미시 원평1동은 지난 6일 동사무소에서 역대 원평1동장 10여 명을 초청, 원평1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시의 주요시책, 원평1동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했으며 선배 공무원들의 동정 경험을 듣고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됐다.

이날 간담회는 역대 동장들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누구 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예전에 근무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남다른 감회를 표하기도 했다.

노상진 원평1동장은 "선배 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동 발전을 위해 소통·공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

김천시4-H한마음대회 개최



김천시4-H본부(회장 지용석)와 김천시4-H연합회(회장 강만섭)는 지난 22일 탑웨딩 로즈마리홀에서 4-H회원, 4-H본부지도자 및 지도교사, 관계자 약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6년도 '김천시4-H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4-H 발전과 시정에 유공이 큰 회원들에게 시장 표창과 4-H대상이 수여 됐고, 모범적인 4-H활동을 한 학교 4-H회 소속 우수 학생 11명에게 4-H본부에서 장학금(2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4-H청소년들의 미래 진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과 한해동안 4-H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학교4-H활동 발표, 오카리나 연주 등 다양한 과제활동 발표를 했다.

한편,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천시 박보생 시장님은 격려사에서 "4-H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4-H인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기자

제23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폐회

칠곡군의회는 지난 22일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36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칠곡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향숙)에서는 총 37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등 시정요

구 15건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검토' 등 건의사항 15건, 그리고, '공매를 통한 골짜기 체납세 징수' 등 우수사례 3건 등 총 33건을 지적·선정했다.

한향숙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 주요사업 등에 대한 현지확인, 질의답변, 서류검증 등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내실있는 확인을 실시하며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언급했다. 이은진 기자

칠곡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체계적 준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리더 워크숍 진행

칠곡군은 지난 21, 22일 이틀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신규 공모 대상지인 왜관읍과 가산면의 마을리더(추진위) 워크숍을 고령 예마을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에 있을 도 평가와 중앙 평가에 대비하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추진위원장의 사업내용 발표 등을 통해 공모

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방향과, 발표 교육, 팀빌딩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성, 공모선정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홍상철 지역개발국장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내년 공모신청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의회, 2016년 의정유공자 시상식 가져



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의정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및 김천시의정회원 등 초청 내빈과 수상자 가족, 축하객 등 약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2명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 전략 구상



곽용환 고령군수는 26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열리는 '고령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6일 오전 초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초전면장 퇴임식'에 참석한다.

고령군 개진면 (주)우일팩 대가야희망플러스에 성금 기탁



고령군 개진면 (주)우일팩(대표 이경)에서는 지난 23일 개진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주민을 위해 전액 사용되는 대가야희망플러스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주)우일팩은 개진면 인안리에 소재한 업체로 강화골판지 수출포장 박스를 제조하는 건설한 중소기업이다.

이 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기 개진면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정에 감사드리며, 개진면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석 기자

고령군, 따뜻한 이웃사랑 줄이어

지난 22일 고령군 성산면 대성산(대표 김상수)에서 고령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23일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지사장 유흥재)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매년 농촌 어르신들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내복 100벌'을 고령군청에 기탁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노동조합 고령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고령군 정미생 연합회(회장 제근식)에서는 사랑의 쌀 60포(600kg)를 기탁했다.

연말연시 고령군은 이웃사랑이 줄이어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손정석 기자

2016년 미래비전 전략회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문경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미래비전 전략회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추진한 시정발전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구비(공모)사업 과제 발굴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발전방안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점촌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시정비, 재해예방 △북지 전략 방안 △농업, 농촌 전략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자리였다.

전체 124건의 추진사업중 '월방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숨겨진 보배인 월방산의 아름다운 바위를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 월방산을 찾는 관광객의 시내지역 유치로 시내지역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인근 봉서마을의 특색을 살

린 경관개선 및 자연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마을환경정비를 통해 월방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굴봉산 돌리네 습지개발 계획"은 "세계적으로 드물고 학술적 보전가치가 우수한 국내 유일의 산지 돌리네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습지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변에 등산로를 조성해 관광객들에

게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시가 각 분야에서 47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내년에도 미래비전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문경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영 기자

문경시, 경북도 인·허가대상 우수기관 선정

수요자 중심 적극적 민원행정 펼쳐

문경시는 지난 22일 경북도가 주관하는 '2016년 민원행정 평가대회'에서 '경북도 인·허가대상' 민원처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민원행정 평가대회는 의성군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 인·허가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속·정확하고 창의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행정 품질향상에 기여한 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문경시는 실시간 고객만족도 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회를 다수 개최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쳤으며,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민원행정 컨설팅을 실시해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인·허가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적극 활용으로 민원인의 비용절감과 구비서류 감축에 크게 기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창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돼 무척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문경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가제

문경시는 지난 23일 오전 점촌동 소재 청오리식당에서 고윤환 문경시장, 담당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김진수씨 등 3명에 대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정년퇴임하는 환경미화원 3명은 20여 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면서 시 전역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한문경시를 위해 최일선에서 몸부림치 않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분들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감동스러운 행사가 됐다.

이날 행사는 김진수, 정영복, 변현수 씨 3명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그 동안 노고에 대한 공로패 수여, 기념촬영, 축하케이크 절단, 오찬 순으로 진행됐고 축하의 큰 박수로 석별의 정을 나눴다. 박세영 기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정겨운 '성주'



성주읍사무소는 지난 23일 동절기 취약계층 57가구에 각 200장씩 1000장(60만 원 상당)의 연탄을 배달했고, 한국도로공사 순찰원노동조합 성주지부에서는 '희망2017 나눔캠페인'에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성주읍사무소는 월항면 홀몸어르신 홍 모 씨(86·여)의 주택이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비탈진 곳에 위치해 연탄배달에 상당히 힘이 들었으나 추운날씨에도 음식까지 준비해 대상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로공사 순찰원노동조합은 전국 지자체 50곳을 선정 기부 릴레이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말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주위의 취약계층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박노균 기자

성주군, '별고을 愛 산타가 떴다'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아동 와병중인 어르신 20가구에 전달



성주군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주민과 저소득 소외계층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별고을 愛 산타가 떴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돼 성주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내 기관·단체(금요회) 후원으로 백미, 내복·학용품세트(65만 원 상당) 등 선물이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아동 및 와병중인 어르신 20가구에 직접 산타복을 착용하고 대상가구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접한 성주읍 통크담(대표 김대현)에서는 옛날통담 32마리(20만 원 상당), 푸레쥬르 성주점(대표 라홍석)에서는 톨케의 15박스(15만 원 상당)를 후원해줘 먹거리까지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힘을 보태했다.

성주읍의 정 모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가정용산소 치료기에 의지해 외출도 못하고 가족과는 관계가 단절돼 연락도 없이 지내며 요양보호사 외에는 찾아주는 이도 없는데 읍장님이 이렇게 방문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성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절기 난방유 공급에 애로를 겪거나 계절 실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의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고와 이연 대상자들에 대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늘 기다리고 있다. 박노균 기자

고령군 개진면체육회 정기총회 열려

고령군 개진면체육회는 지난 22일 면회의실에서 체육회원 7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사업 및 결산,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김영란법에 따른 체육회규약 개정, 임원개편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 등의 순서와 체육회 발전도모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개경포공원 앞 하천둔치에 운동장 조성으로 면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면민들의 흥겹고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

한 해 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체육회 발전에 도움을 주신 임원 및 출향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드리고 특히,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실무부회장을 신임 체육회장에 이윤중 씨를 유임결정하고, 수석부회장은 최해동 씨, 감사는 허문규 씨, 김기봉 씨, 부회장으로 김병주 고령기와대표, 장인석 적십자회장을 추천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승인된 이윤중 회장은 "체육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임을 밝혔다. 손정석 기자

푸른숲! 맑은물! 건강한 도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가득한

상주로 오세요!

www.sangu.go.kr

관광객의 소리, 안동관광시책 발굴에 활용한다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개인택시 복지관에서 열리는 '2016년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6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리는 '의성군장학회 제3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군위군, 2016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수상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위군은 최근 경북도에서 주관한 2016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시군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올해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군위군은 지난 6월 15일 서울 투자유치설명회 활동과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산업인 풍력발전단지 유치,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유치 등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금년도 현대중공업에서 사업비 400억 원을 유치, 군위군·영천시 일원에 2017년까지 화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15년에는 SK D&D에서 2230억 원의 풍백 풍력발전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농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영농 복합 태양광 발전 사업(Solar sharing)도 유치추진 중으로, 향후 군은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메카가 될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은 농촌의 입장에서 인구 늘리기로 연결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계면 돌담지구, 산대지구와 효령면 중구지구 전원마을이 총 1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부계면 일대 총 150세대 규모의 임대형 전원주택단지를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 중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투자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에 매진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안동관광 열린세상 소리함과 안동관광(건의)엽서 배부

안동시는 안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동관광 열린세상 소리함'과 '안동관광 엽서'를 주요 관광지 및 한옥체험업소 등 관광서비스(사업체) 업체에 배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광객들의 안동관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된 관광(불편신고 등 건의)엽서 1만 매는 이미 주요 관광안내소나 여행사 업체 등에 배부돼 활용 중에 있다.

특히 안동시가 자체 추가로 제작한 5000매의 엽서는 안동 주요 관광지의 주요 배경을 가미해 안동을 찾아온 외국인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했다. 단순한 건의(개선)사항 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도 할애했다. 또한, 이 엽서들을 보관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한 '안동관광 열린세상 소

리함'(비치함)은 전통한지에 매화, 국화 등을 표현해 딱딱하고 단순한 비치함이 아니라 안동의 전통 문화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동관광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엽서와 소리함 이용을 적극 홍보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에 따른 안동 관광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김용구 기자

예천군, 2016 축산분야 시책사업 추진 성과 크다

축산발전사업 및 가축 방역 사업 효과 극대화 실현 등

예천군은 올해 예천 참우 명품화 추진은 물론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한 청정축산 환경구축 등 FTA체결에 따른 대외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강화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사업을 위해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등에 20억 원을 투입해 청정축산 환경을 구축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예천한우의 지속적인 개량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8억 원을 들여 한우거세지원 등 한



우개량과 고급육생산으로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FTA체결에 따른 돼지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 원,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지원 등에 7억 원을 지원해 돼지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로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축산물 HACCP 인증 추진 등 친환경 축산육성에 5억 원을 지원하고,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투입해 품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 기반 확대로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특히, 예천한우 농가의 조직화 및 사양 통일화를 위한 예천참우명품화사업에 2억여 원을 지원한 결과 1등급 출현율이 올해는 71.4%로 지난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예천참우 육질분석 결과 비교 시현군에 비해 소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축산업 대외경쟁력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의성군, 2016 을지연습 우수 기관표창 수상



의성군이 지난 8월 22일~25일까지 실시된 을지연습 평가에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속에 빈틈없는 지역방위태세를 인정받아 전국단위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민안전처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은 기관장 주관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차질 없는 연습을 수행하고, 연습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예비군과 의용소방대원 등 지역주민을 실제 훈련에 참여시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안보사진 전시, 방독면 및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사용요령 등 다양한 안보·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비상 및 재난대비 의식을 제고했다.

박재성 기자

군위군 소속 공무원 특별교육

군위군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군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역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속 공무원 특별교육은 부서별 및 읍·면별 자체교육 실시 이후 그 연장선상으로 신순식 군위군 부군수가 지역안정 특별대책 5대 중점 추진사항을 위주로 특강을 했다.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을 통한 비상상황 대비, 공직사회 동료방치 대책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당면 현안업무의 흔들림 없는 추진, 물가관리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주민안전 및 사고예방, 각종 재난 신속 대응에 관한 것이다.

특히, 신순식 부군수는 요즘같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흔들리면 군민도 흔들린다고 하면서 공직자가 중심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2016 의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 열려

의성군새마을회(회장 장상은)는 지난 2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읍면 남녀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의성군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제2새마을운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선진군민

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결의도 다졌다.

시상식에서는 다인면 박병국 씨가 새마을대상을 받았으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상은 점곡면 김경석 씨가 수상하는 등 30여 명이 행정자치부장관, 경북도지사 및 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한,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을 실천한 읍면과 단체평가 결과 읍면평가에는 단북면이 최우수상을, 단체평가에는 단북면새마을회가 대상을 받았다.

장상은 의성군새마을회장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을 계승하고 제2 새마을운동인 나눔·봉사·배려를 실천해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물맑은, 고장 정직한 농부 예천 Yecheonsaem 새움 예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영주시 공무원 정책동아리 '톡톡' 튀는 정책제안



장국현 영주시장은 26일 오전 풍기문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2016 사과발전연구회 연말총회 및 기술교육'에 참석한다.



권연택 영양군은 26일 오전 영양군청에서 개최되는 '한국플라스틱 주식회사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다.



봉화군 향토회 장학금 전달

봉화군향토회(회장 박재현)는 지난 20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봉화군향토회는 9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고향을 지키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2013년부터 매년 꾸준한 장학금을 후원해 오며, 지역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박재현 회장은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미래 봉화군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봉화군과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하승영)는 건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공무원 노사문화대상 및 우수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행정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봉화군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원가족 초청행사, 책 나눔 캠페인, 헌혈 캠페인, 김장나눔기 행사, 농촌일손돕기, 직원화합행사, 직원들의 복지 증진 사업 등 많은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런 노력이 높이 평가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승영 직장위원장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직협이 소통을 바탕으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물이며, 군민들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 성료 무한상상, 정책아이디어 축제의 장 펼쳐

'2016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에서 문화관광팀(선비타운)의 '무심마를 주변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관광팀(선비타운)은 한국관광의 별과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 선정된 무심마을의 전통문화와 주변환경을 관광지로 특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실무회의 12회, 현장조사 3회, 설문조사 3회 등 다양한 연구조사로 시정에 바로 적용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연구시책을 발굴했다.

지난 22일 시청 강당에서 영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아이디어 발굴·공유하는 자리인 '2016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선정됐다.

영주시청은 직원들의 정책제안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해 시정의 각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7개 분야(지역경제, 문화관광, 힐링복지, 행정효율, 정책발굴, 로데오, 사회복지) 78



명으로 구성된 운영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영주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정책동아리인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의 7개 팀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연구해 온 과제들을 10분씩 발표하고, 참석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200명의 현장투표와 민간인 심사위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점수는 현장평가단 점수 60점과 심사위원 점수 4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 무선투표시스템을 통해 발표가 끝나는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현장평가단은 7개

팀의 발표가 끝나가는 순간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평가에 임했다.

실시간 현장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온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1팀을 가려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무심마를 주변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문화관광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변화하는 조직이 살아 남는다'라는 주제의 행정효율팀이 수상했고, 장려상에는 '선비도시 이미지 메이킹 프로젝트'의 정책발굴팀이 각각 수상했다.

장국현 영주시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동안 연구회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거둔 성과물이라 생각한다"며, "제안된 우수 정책제안은 시정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영주시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일하면서 연구하는 자율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창의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통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현장중심 연구·살아있는 농업기술 개발 공유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농업기술



센터에서 한 해 동안 신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영주시가 올해 추진한 연구응역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력적 연구사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다. 또한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농업인과 함께 공유·토론하는 자리로서 농업인 100여 명, 협력기관 및 관계관 20명이 참석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대상에서 '연구협력우수센터상'을 시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꿀벌 꽃가루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소

재화 연구'의 5건의 연구개발 성과와 28개 농업기술시범사업을 138개소에 추진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에게 신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평가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술과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영농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제가 발굴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돼 좋았다고 평가했다.

장국현 영주시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농업의 가능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고, 영주농업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기술개발로 영주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2016 농촌진흥 우수 기관상 수상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16 경북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2016 경북도 농촌진흥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수시책분야로 ICT 융복합기술과 토양정밀검정, 유유미생물의 보급 등 고추와 과수에 접목해 과학화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채소, 과수, 산채 등 기존 고추, 사과 작목에서 다양한 작목이 전량되도록 적응시험을 거쳐 새소득작목 개발에도 앞장 선 결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상하는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수상을 통해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게 됐으며, 상사업비 삼천만원의 시범 및 지도기관 조성 사업에 활용, 농업인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로운 트렌드 농업 환경에 발맞추어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영주시보건소, 직원 모두가 친절 교육 강사

민원응대 서비스 개선 위해 일일강사 릴레이 교육 실시

영주시보건소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 공공보건조사 등을 대상으로 연중 친절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절교육은 보건소 직원 중 선정된 한명이 일일강사가 돼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일일강사가 다음 달 일일강사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

식으로 진행했다.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이 모여서 실시한 친절교육은 연인원 750여 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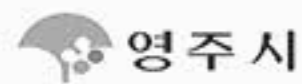
일일강사가 직접 민원인을 대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하고, 더 나은 친절 서비스를 위한 방법 등을 토론했거나,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하는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 역할에 부담을 느끼던 직원들이 교육이 진행될수록 민원인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개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구호를 만드는



등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강석조 소장은 "친절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이해도와 친절 실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영주"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태어나 '선비로 산다는 것'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바꾸길 꿈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500년 새로운 역사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사상이 정도전이 되었습니다.

영주에서 또 어떤 꿈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외국인 영어강사들 산타로 깜짝 변신

수성구 드림스타트
영어수업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아동 위해
선물 나눔 행사 펼쳐

대구 수성구 드림스타트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산타로 깜짝 변신, 수성구 지역 복지시설 아동들을 위한 선물 나눔 행사를 펼쳐 화제다.

수성구 한빛지역아동센터에서 원어민 영어수업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미국, 남 31세)은 복지시설 아동 110여 명에게 선물을 전해 주기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한 '2016 Give A Gift Appeal' 이벤트를 기획했다.

지난 19일 한빛지역아동센터와 성립원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애월원 22일에는 신망에원과 수성구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여섯 번째를 맞고 있으며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Daegu's Time To Give'가 그동안 대구에서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더욱더 뜻이 깊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외국인 봉사자들은 자신이 지정한 시설 아동을 위해 맞춤형 선물을 준비하고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는 등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외국인 네트워크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외국인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한빛지역아동



센터와 드림스타트에서 매주1회 영어수업 자원봉사를 하며 평소 원어민 교사를 만나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할로윈 파티와

같은 이벤트도 마련해 시설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지난 4월에는 수성버림시장에 참여해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류재희 기자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전달

건이강이 가족봉사단, 따뜻한 겨울 보내기 봉사활동 실시

건이강이 대구가족봉사단(단장 김영희)은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24일 대구 남구 북덕동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인 대구아동복지센터(원장 도병권)를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입소 아동들을 격려하고, 후원물품(생활용품 4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성장기 아동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아동복지센터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져 도움의 손길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동들을 위해 매년 수시로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단에서 올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한다"며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영희 단장은 "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봉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앞으로도 나눔의 정 이어나갈 것"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운문) 동부사업소는 22일 달성군 가창로에 위치한 소망요양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한 위문품(4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시설내부 환경정비 등 노력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사업소(소장 이태호)는 후원협약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내부 조명등·콘센트·스위치 교체 및 주변 내·외부정소 등 노력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소망요양원 송정수 원장은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지원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보다는 관심과 사랑"이라며 "계속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눔의 정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사업소는 앞으로도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지원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DGB금융그룹, 사랑을 담은 케이크 드세요

JUMP 산타! 사랑의
희망 케이크 전달 행사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사장 박인규)은 22일 오후 칠성동 제2본점에서 'JUMP 산타! 희망 케이크' 전달식을 진행했다. 'JUMP 산타! 희망 케이크' 행사는 DGB금융그룹 관계자와 지역학생들로 구성된 With-U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이 케이크를 비롯해 약 800여개의 케이크를 대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203개소에 전달하고자 진행했다.

'미스터 점프' 박인규 은행장은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크리스마스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으며, DGB사회공헌재단 With-U 대학생 봉사단원 6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만들어진 50개의 케이크를 비롯한 800개의 케이크는 지역아동센터대구광역시지원단(김진원 단장)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구지부(강미숙 지부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구광역시협의회(이승준 회장)에게 전달돼 대구 지역 전 지역아동센터에 19-23일 닷새간 배달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사용된 재원은 지난 한 해 DGB금융그룹이 한 해 동안 다양하게 진행한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것에서 뜻 깊다. DGB금융그룹이 창립49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DGB 사랑의 내발 자전거'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모



은 기금을 비롯해 DGB대구은행 후원금으로 지역 연고법인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후원을 할 때 마다 적립되는 'DGB 사랑의 후원금' 기금, DG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공제해 모금한 금액 등 다양한 온정의 마음이 모여 지역 아동센터에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케이크를 만든 'With-U 대학생 봉사단' 5기 단원들은 올 한해의 봉사활동을 사랑의 희망 케이크 만들기로 마무리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DGB사회공헌재단과 봉사활동을 같이 한 'With-U 대학생 봉사단'은 기획, 홍보, 멘토링, 경제교육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이지

고 전문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금융기업의 특성을 살린 멘토링과 경제교육팀은 매주 1회 이상 40회의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65명의 봉사단원들이 총 5615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박인규 이사장은 "With-U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DGB금융그룹은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유희 기자

옥포면 민간사회안전망, 어려운 이웃 온기 전해

홀몸노인 5명에게 난방비
100만 원, 저소득 자녀중
초등 신입생 5명에게 학용품
담은 책가방 5셋트 기탁

옥포면 민간사회안전망(위원장 나중수)은 22일 홀몸노인 5명에게 난방비 100만 원, 저소득 자녀중 초등 신입생 5명에게 학용품을 담은 책가방 5셋트 기탁 등 동절기와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연료비 걱정이 앞서는 12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추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현금 100만 원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기소침하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용품 담은 책가방 5셋트를 기탁했다.

나중수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들 모두가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늘 행복하기를 기원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포면 민간사회안전망은 사랑의 응달샘 운영, 실버웨딩지원사업, 명절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등 공공 지원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민관이 함께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복지사각지대에 큰 힘 될 것"

달성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681만 원 기탁

달성군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성교)는 22일 군청을 방문해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681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서성교 회장은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 나눔행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문오 달성군수는 "도움과 관심이 절실한 곳이 많은데, 정성스런 성금을 기탁



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확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교촌치킨, 서문시장 화재 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주)가 22일 호텔 인터볼로 대구에서 열린 (사)한국치맥산업협회 송년의 밤에 참여하고 사회공헌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교촌은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축제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협회 회원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송년회

에 함께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교촌은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고 현장을 복구하는데 사용할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교촌에프앤비(주) 이근갑 국내사업부 부문 대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최근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돕는데 동참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사이버대학 졸업 제2의 인생 꽃피우다



영진사이버대학 최고령 졸업
강석규 씨,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과 열정을 잃으면 그때부터 늙습니다. 인생은 운동경기와 같다고 합니다. 확실한 승리는 후반전에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

입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歲暮)에 만난 강석규(83) 씨의 말이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지역 사랑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올 한해도 참 바쁘게 보냈다고 한다.
전쟁부상자와 미망인을 상대로 세운 보훈 복지문화대학에서 사무장으로, 대구중구노인

상담소 수석상담원으로서 제2의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그의 이런 열정은 영진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서 가일층 탄력을 받았다.
강 씨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중학생으로 학도의용군이 돼 6.25전쟁에도 참전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30여 년 전 정년퇴직했고, 이후 10여 년은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다.
일흔이 돼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컴퓨터, 노인상담, 학교폭력예방, 통일안보 등 전문교육이 있는 데는 다 찾아다녔고, 덕분에 여기서 쌓은 실력으로 강의와 상담, 모니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자 노인을 상대로 소통하고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내기엔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르렀고, 2013년 만학도로 영진사이버대학에 입학한다. 여든의 나이, 최고령 신입생이 된 것이다.
그는 2년간 대학생활을 통해 노인상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노인복지 공부로 제가 활동하는 노인상담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문성을 갖추니까 누군가를 돕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끼게 돼 좋았습니다”
지난 22일 만난 강석규 씨는 희끗한 머리를 날리며,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리는 통일관련 세미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확실한 승리는 후반전에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여든 청년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영진사이버대학은 내년 1월 3일까지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이 대학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학사 학위는 물론 최소한 1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수와의 1대1 밀착지도방식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졸학력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김진희 기자

구미시에 2016 뻗다! 산타클로스!



구미시장 등 7명 산타클로스
사회복지시설 등 깜짝 방문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격려

구미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남유진 시장, 이경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우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권 부시장,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조화래 체육진흥과 주무관 등 7명의 산타클로스가 사회복지시설 5개소, 위기가정 4가

를 깜짝 방문해 총 2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2016 뻗다! 산타클로스 행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힘든 주위의 위기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문화적 정서적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따뜻한 연말분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 조화래 공무원 개인 후원을 통해 양말, 장갑, 과자 등 크리스마스 선물(200만 원 상당)을 준비해 시설 이용자와 어려운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은진 기자

울진군, 민원행정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민원실 내 북카페 설치 등
신속·편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울진군은 2016년도 경북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업을 도했다.
올해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채택, 민원서비스 제공 개선사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수상은 울진군이 그 동안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민원실 내 북카페 설치, 한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전담신고 센터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인 민원편의의 시책 추진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었으며, 유기한 민원 단축 및 원스톱 방안을 검토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결과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계층 및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성 기자

‘문경전통찾사발축제’ 2017 대표축제로 선정

5년 연속 최우수축제 선정

문경전통찾사발축제가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문경전통찾사발축제·김제지평선축제·화천산천어축제 등 3개의 대표축제를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해 올해 18번째로 열렸던 문경전통찾사발축제는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문경새재에서 9일간 펼쳐졌던 2016 문경전통찾사발축제는 축제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 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 일본 심수관 특별전, 체험 프로그램의 재미 증가, 한중일 다례시연 등 차동호인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한복착용자의 무료입장을 통한 전통성 강조 등의 특성을 보이며, 축제

의 품격과 재미를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인계수기의 도입은 축제 입장객의 정확한 숫자 파악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로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무료입장은 전통 찾사발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리는데다 한국의 멋을 느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전국 차 동호인들이 펼친 개막식의 아름다운 찾사발 경연대회는 문경의 전통 찾사발과 차, 그리고 사람이 만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이벤트로 올해 첫 시도였지만 알차면서도 품격을 높이고 허례를 배제한 개막식 행사로 꼽혔다.
특히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만 산문을 개방하던 천년 고찰 봉암사가 축제기간 참가자들을 위해 순례길을 내준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문경시는 대표축제 승격에 맞춰 이제는 문경찾사발의 세계인의 꿈을 담겠다는 의지로 각종 이벤트 등 축제 발전방안의 강구와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축제로 승격되면 국·도비 9억 원의 예산지원과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유명축제 수준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박세영 기자

칠곡군, 5년 연속 ‘투자유치 대상’ 장려상 선정

사후관리 힘을 쏟은 노력 인정

칠곡군은 지난 23일 ‘2016년 경북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칠곡군은 유치기업 지원 및 애로해소 등 사후관리에 힘을 쏟은 노력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칠곡군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80% 분양했다.
또, 왜관3산업단지에 3506억 원과 농기계특화단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입주업체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은진 기자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을 위해 조성된 23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안전사고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해 노후된 인도정비, 도로재포장, 단지내 차선도색도 실시했다. 이은진 기자

안동시민, 건강 100세 책임지는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등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생물테러 대비·대응 전국 우수,
저출산 극복사업 경북도 최우수,
금연사업 평가 경북도 우수기관상



안동시 보건소가 2016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등극했다.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펼친 결과로 건강도시로서 행복안동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안동시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저출산 극복, 금연사업, 부정발광식품유통근절, 식중독 예방,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보건소는 2014년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신축

해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질병예방 관리교육, 비만클리닉, 건강상담실 운영, 영양교육, 운동처방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상태 평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성인병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경로당 방문 건강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해 중증 합병증 발생과 사망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용구 기자

구미 경제 전 분야에서 성과 인정받았다

투자유치 부분 5년 연속 수상, 창조경제 경영혁신 기관 대상

구미시가 2016년 경제·산업의 전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 한해동안 구미시는 1조8245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 추진한 결과,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시책’ 부분에서 각각 5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경영혁신부문 기관대상 수상, 8월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수상, 지난달에는 중국대



외우호도시교류협력상 수상 등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국면 고착화와 내수시장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전반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은 한해였다. 이은진 기자



스포츠

대구광역시일보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18

프랑스 언론 “챔스 뛰었던 손흥민, PSG행 불투명”



프랑스 언론이 이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었던 손흥민(24·토트넘)의 파리 생제르맹(PSG) 이적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다.

프랑스의 ‘메르카토365’는 25일(한국 시간) “PSG행 가능성이 제기됐던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영국의 일간지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PSG가 1월 이적 시장에서 측면 공격수로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PSG는 이날 독일 출신의 공격수 올리안 드라슬러(23·볼프스부르크)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보강했다.

매체는 “영국 언론에서 PSG가 손흥민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드라슬러를 데려오면서 변수가 생겼다”고 전망했다.

메르카토365는 더 나아가 이미 토트넘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던 손흥민이 파리로 올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토트넘은 32강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로 떨어졌지만 PSG는 16강에 올라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토트넘에서 2016-17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소화했던 손흥민은 만약 PSG로 가더라도 규정상 토너먼트에 뛠 수 없다. 한 시즌에는 한 팀 밖에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메르카토365는 “20경기에서 6골을 넣은 손흥민은 끌리는 선수지만 PSG로 가더라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에게 가장 매력적인 자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PGA 김경태·최경주 올해의 벙커샷 ‘톱10’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와 최경주(46·SK텔레콤)가 2016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벙커샷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PGA투어는 25일(한국시간) 뉴리지를 통해 2016년 한해 동안 투어에서 나온 벙커샷 명장면 ‘톱10’을 선정해 소개했다. 이중 김경태가 2위, 최경주가 10위에 올랐다.

김경태는 지난 3월 월드 골프 챔피언십(WGC) 시리즈 개막전 챔피언십 4라운드 12번홀(파5)에서 멋진 벙커샷을 선보였다.

세컨드샷을 벙커에 빠뜨린 위기였지만 김경태는 133야드(약 121.6m)가 떨어진 위치에서 친 벙커샷을 그대로 훌쩍 집어넣으며 이글을 만들어냈다. 김경태는 이 대회에서 공동 42위를 기록했다.

최경주는 10위에 자리했다. 그는 지난 6월 열린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 18번홀(파4)에서 벙커샷으로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지난 2013년 PGA투어에서 샌드 세이버홀(벙커샷 세이버) 67.2%로 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벙커샷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뉴스

‘더 빨라진’ 김수지, 흥국생명 전반기 1위 수훈갑

이동 1위, 속공 2위, 블로킹 4위 등

‘만인나’ 김수지(29·흥국생명)가 더 빨라졌다. 화려하진 않지만 김수지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흥국생명이 예상을 깨고 2016-17시즌 V리그 여자부 전반기 1위에 올랐다.

흥국생명은 지난 24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3-0(25-20 25-23 25-21)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11승4패(승점 32)를 기록, 2위 현대건설(10승5패·승점 29)의 추격을 따돌리고 전반기를 선두로 마쳤다.

3라운드에서 4승1패의 상승세를 이어간 흥국생명은 센터 김수지가 최근 공격력이 부쩍 좋아진 모습이다. 센터의 특성상 많은 점수를 책임지진 않지만 흥국생명은 김수지를 활용한 이동공격과 속공을 쓰는 빈도가 늘었다.

1라운드만 해도 5경기에서 33득점, 공격성공률 32.81%에 그쳤지만 3라운드에선 59점(경기당 12점), 공격성공률 45%까지 상승했다. 최근 5경기에서 블로킹도 17개를 잡아내면서 세트당 1.063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높이에서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리우 올림픽을 다녀오느라 짧은 휴식 등으로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서히 코트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컨디션이 올라왔다. 김수지는 “단지 베테랑이란 수식어보다 배구를 더 잘하는 선수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잔부상도 있었지만 한 발 더 악착같이 뛰었다”고 말했다.

기록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 ‘이동 공격 킷’이란 애칭처럼 이동공격에서 성공률 54.41%로 1위에 올라섰고, 속공 부문에서도 김유리(기업은행·51.67%)에 근소하게 뒤진 2위(51.61%)에 자리했다.

김수지는 “매 경기 코트에서 다 쏟아낸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올해 경기를 모두 마치고 짧은 휴식기를 갖는 김수지는 “전반기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친구(김)연경(페네르바체)이와 수다를 떨며 풀어야겠다”고 미소 지었다. 뉴스



NBA 파이널 최종전 ‘블록슛’ 2016 스포츠 최고 명장면

AP 통신 선정… 네이마르 리우 올림픽 축구 결승전 승부차기 3위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 7차전의 블록슛이 2016년 스포츠계에서 나온 최고의 명장면으로 선정됐다.

AP통신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올해의 명장면(Plays of the year) ‘톱10’을 발표했다.

이 중 1위는 올해 6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붙은 NBA 챔피언결정전 최종 7차전이 꼽혔다.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정규시즌에 73승9패로 역대 최다승 기록을 경신하고 챔피언까지 승승장구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동부 챔피언 클리블랜드는 5차전까지 1승3패로 밀렸지만 5, 6차전을 내리 잡고 승부를 최종 7차전으로 이끌었다.

7차전에서 경기 종료 1분51초전까지 89-89 동점 상황이 이어졌고, 제임스는 골든스테이트 안드레 이귀달라의 골밑슛을 블록으로 막아냈다. 골든스테이트는 결국 종료 53초전에 터진 카이리 어빙의 3점슛 등을 보태 93-89로 승리, 장단 첫 우승을 일궈냈다.

2위는 ‘3월의 광란’ 미국대학농구(NCAA) 토너먼트 결승전이 선정됐다. 빌라노바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맞붙은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빌라노바대 크리스 젠킨스의 극적인 3점슛으로 승부가 갈렸다.

3위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결승전이었다. 브라질과 독일이 맞붙은 결승에서 양 팀은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는 마지막 키커로 나서 5-4 승리를 확정짓는 슈트를 성공시켰다. AP통신은 이를 ‘진정한 골든골’이라고 명명했다.

4위는 9월 27일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뉴욕 메츠의 경기에서 터진 디 고든의 홈런이었다. 이날 경기가 열리기 이틀 전 마이애미의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고, 마이애미 선수들은 페르난데스의 이름과 등번호(16번)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1회말 투타자로 등장한 고든은 홈런을 쏘아올린 뒤 그라운드를 돌며 눈물을 흘렸다.

5위는 피츠버그와 산호세가 맞붙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챔피언결정전 2차전의

연장 열투가 꼽혔다. 6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연장전 끝에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꺾고 우승한 장면이 선정됐다.

7위는 북미프로미식축구(NFL)의 덴버와 캐롤라이나가 맞붙은 슈퍼볼이, 8위는 리우 올림픽 수영 여자 자유형 100m 금메달리스트

시몬 마누엘(미국)이 꼽혔다. 마누엘은 올림픽 수영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딴 여자 흑인 선수다.

9위는 미국대학풋볼 준결승에서 맞붙은 영스타운 주립대학과 이스턴 워싱턴 대학의 경기, 10위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LA 스파르칸스와 미네소타 링스의 결승 5차전이 선정됐다. 뉴스



‘고비 넘긴’ 서울 삼성 ‘서울 라이벌전’서 단독선두 도전

위기를 넘긴 서울 삼성이 크리스마스 ‘서울 라이벌전’서 단독선두 탈환에 나선다. 삼성은 2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17 KCC 프로농구에서 서울 SK와 맞붙는다.

2라운드 초반까지 선두를 유지했던 삼성은 12월 힘든 시기를 보냈다. 1일 원주 동부전을 마지막으로 홈경기 없이 원정경기만 내리 7경기를 치러야했다.

패배 숫자가 늘어났고, 고양 오리온과 벌이 선두 싸움에는 안양 KGC까지 가세했다. 이상민 감독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자칫 선두권에서 밀려 3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2연패 이후 일정이 오리온, KCC와의 연이은 맞대결이었기에 위기가 깊어졌다.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상위권 팀에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 21일 오리온전에서 혈전 끝에 5점차 승리를 거뒀고, 23일 KGC전에서는 전반에 벌여놓은 점수차를 잘 지켜내면서 비교적 쉽게 승리했다. 이 경기에서는 베테랑 가드 주희정이 1000경기 출전의 대업을 이룬 경기라 기쁨이 더 컸다.

2연패 후 2연승을 거두면서 삼성은 다시 공동선두(16승6패)에 복귀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이날 ‘서울 라이벌전’을 통해 단독선두에 도전한다. 이 경기는 삼성의 길었던 ‘원정 8연전’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다.

‘서울 라이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양 팀의 분위기는 상반된다.

삼성엔 2연패를 당했던 것이 가장 안 좋은 흐름일 정도로 올 시즌 줄곧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마이클 크레이 등 두 외인의 기량이 모두 출중하고 김준일과 임동섭, 김태술 등 국내선수 진용도 탄탄하다. 2연패 후 2연승에 원정 8연전 마지막 경기라는 점도 상승 분위기를 이룰 수 있는 이유다.

반면 SK는 최근 5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다. 7승15패(0.318)로 승수보다 패수가 2배 이상 많다. 주포 테리코 화이트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장신 외인으로 제임스 싱클레어를 새로 영입했지만 2번을 더 졌다. 최근 팀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팀 중 하나다.

올 시즌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삼성이 승리했다. 다만 양 팀의 전력차에 비해 비교적 접전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다는 점은 두고볼 부분이다. 뉴스



오늘... 생각한다

■ 광역칼럼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I) 원장

우리 사회는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사퇴, 탄핵 즉각 인용 요구와 탄핵 반대 시위가 맞서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와 같은 혼란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단기간에 수습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같으면 문제가 안 될 만한 일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에 시비(是非)를 가리고 조정할 사회지도층이나 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면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각계각층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장해 국론이 분열됐을 때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취한다고 각 계층의 모든 주장을 검증도 안 한 채 그대로 확정기

처럼 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도리가 아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 대부분 언론 기관이 지지 후보를 밝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언론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종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왜곡 보도해 갈등 요인을 증폭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박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 정지가 돼 있으므로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 문제를 심각히 지적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다. 국정 혼란이 뻔한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요구에 언론이 침묵하니 주말마다 그런 요구가 반복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사용했는데도 아직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한다. 세월호 진상 규명 논쟁으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언론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주장을 구체

적으로 밝혀 주고, 그것에 대한 정부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알려 줘야 한다. 아울러 양쪽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이와 같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2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 이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양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해 반미 감정과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그 당시 일부 방송은 오히려 위험성을 과장해 대다수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터무니없이 허위 과장됐다는 점을 언론이 제대로 지적했다면 그와 같은 국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경멸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종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다. 흔히 국정 운영이 잘못되면 정치인을 탓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따라서 언론은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언론은 시류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사회의 목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상주-영덕 고속도 개통, 지역발전 기폭제로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7년 만인 26일 0시를 기해 개통됐다. 당초 23일 개통하기로 했던 것이 공사미비로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은 끝에 오늘 개통됐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충남 당진에서 대전-세종-상주를 거쳐 백두대간을 넘어 동해안 영덕까지 이어지는 동서 4축 고속도로이다. 107.6km의 상주-영덕 구간에만 총 사업비 2조 7500억 원이 투입돼 7년간에 걸친 난공사였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새 경북 도청이 들어선 안동과 예천 지역을 포함해 경북도의 북부와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도의 동맥이다. 그간 상주에서 영덕까지 가려면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무려 3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제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에서 대전과 세종 상주 영덕을 잇는 300km의 동서4축 고속도로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허리권의 동서가 하나로 융합하는 큰 의미도 갖게 됐다.

영덕과 동해안권의 교통편의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고속도로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효과가 주목된다. 동서4축 고속도로의 완성과 서해안과 동해안은 반나절 거리로 가까워진다. 수도권에서 안

동의 유교문화유산, 영덕의 해양풍광 등 경북의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경기권, 충청·전라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 마케팅을 시작한 영덕군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된다. 충청권과 연계한 공동 관광객 유치도 생각해볼 만하다. 침체된 농어촌 경기 활성화를 이끌 귀농-귀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될 편익비용을 연간 94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북도와 각 시군의 노력에 따라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당장 경북 동북부 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등 관광-레저자원을 활성화시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에 다가 온 재밌는 축제와 내년 대개 축제 는 물론 영덕 블루로드, 안동 화회마을 등 지역 관광지가 수혜를 받게 됐다.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청송 진보면 신촌리에 '동청송-영양 나들목'이 들어 서면서 교통오지, 육지 속의 섬 영양과 청송이 마침내 고속도로 시대를 맞게 됐다. 주왕산과 주산지 등지에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청송 역시 파급효과로 들떠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기대효과들은 경북도와 지자체들의 노력에 달린 일이다.

건강보험 부담 청구액이 연 6천 억이러니

국고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이 쪼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담청구액이 올해도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담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2011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요양기관이 허위 부담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 1100만 원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부담청구금액은 2014년 4487억7500만 원에서 2015년 5939억7500만 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런 부담청구액은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병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부적정지출 관리방안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 해에만 건강보험에서 부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442억 원에 달했다. 부적정지출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부담청구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뜻한다. 요양기관들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담

하게 타낸다. 건보공단의 '2016년도 제3차 부담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A 요양병원은 퇴사한 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서 요양급여 1억3611만 원을 청구했다.

B 병원은 소속 약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긴 후 요양급여 1억9397만 원을 청구했다. C 한의원은 지인과 친인척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고서 5697만 원을 청구했다. 건강보험 당국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들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건보재정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다. 일부 병원의 이른바 '나이롱환자' 만들기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속식제금을 미끼로 노인 등을 입원환자로 유치해 건보 재정을 도둑질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의료·요양기관이 도덕적 해이로 건보재정을 '썩뜨린' 정도도 여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는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진료비 부담청구에 대한 '숨방망이 처분' 규정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의제언

'호박불취부개'의 자세가 필요한 때



김학대

경산소방서장

최근들어 각종 사건 사고, 이슈들로 사회가 혼란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네 달여가 지났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당연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하던 식사대접이 각자 계산하는 문화로 바뀌고 경조사 선물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다소 딱딱하고 적응이 안될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생활 속에 정착된다면 보다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며 공식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적인 제재 강화도 필요하지만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규제권한, 인허가권 등 각종 권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

요한 규제의 개혁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공식사회의 청렴성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소망은 연말연시를 맞아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들뜬 연말분위기에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불안요인을 근절해 안전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호박불취부개(琥珀不取腐芥)', 호박같이 아름다운 보석은 썩은 먼지를 흡수하지 않는다 한다. 이는 청렴한 선비는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부정한 물건과 마음을 경계하고 청렴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신뢰받는 소방이 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이다.

**아이야,
서투른 도움이라
미안해**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만난 적도 없는 먼 나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서는 부분을 유니세프가 채워줍니다.

서투르도 좋아요 유니세프가 있으니까요

www.unicef.or.kr

021723-8215 www.unicef.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만약하시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343-01-0010-741 | 신청은행 140-001-916222 우체국 010777-01-000305 휴대전화 후원번호: 2004 (한 통화 2000원)



경북도청 '빛나서' 성탄절 맞이 사랑의 봉사

경북도청 빛나새빛을 나누는 사람들(화원과 가족 등 17명)은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안동 경안신육원을 방문해 어린이 48명에게 화장품, 목도리, 장갑, 케익 등 15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한편, 빛나서는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봉사 동호회, 휴일을 이용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통계로 본 지난 10년... 농촌 인구 감소에도 경북 인구 증가

도, 통계로 본 지난 10년의 변화상 발간

경북도는 2006년부터 2015년말 까지 지난 10년 경북의 변화상을 인구, 재정, 노동 등 16개 분야 80개의 통계지표를 통해 짚어 보는 '통계로 본 지난 10년의 변화상'을 발간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북의 인구는 275만3000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해 3만4000명(1.3%)증가했다. 그 중 외국인 증가폭이 매우 커 10년 전 대비 67.4% 증가한 5만 명으로 나

타났다. 세대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현재 116만9000세대로 10년 전 대비 1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인구는 2006년 2.6명에서 2015년 2.3명으로 감소했다.

경북도 총예산규모는 10년 전 대비 11조 8238억 원(91.2%) 증가한 24조781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조 7391억 원, 특별회계가 4조 427억 원이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은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사회개발비가 8조 7840억 원으로 42.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92조 7000억 원으로 10년 전 61조8000억 원 대비 31조 원이 증가해 그 증가폭은 16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도민 1인당으로 계산한 1인당 GRDP는 2014년 3500만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200만 원이 증가했다.

경북의 수출실적은 전국수출의 8.25%를 차지하며 10년 전 대비 10% 증가했고, 수입은 48.9% 감소해 무역수지는 309억5500만달러 흑자로 10년 전 대비 105.5% 증가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경북의 1인 이상 사업체는 2014년 21만 4000개, 종사자 102만9000명으로 10년 동안 3만3000개의 사업체가 증가했는데, 이 중 광업제조업사업체는 5000개로 25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취업자는 141만2000명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63.5%)가 가장 많은데, 전국과 비교하면 농림어업취업자(16.9%, 전국 5.2%)와 광제조업 취업자(19.8%, 전국 17.4%)의 비중이 높았다. 2015년 경북의 농림어업취업자는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2006년 대비 9만1000명(27.7%)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북은 전국 최대의 농도(농도)로서 2015년 농가 18만5000호, 농가인구 41만명으로 전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그 위상에 걸맞게 농업소득이 전국 1위로 10년 전 보다 255만2000원 증가한 1547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752만5000원으로 10년 전 대비 364만6000원(17.2%) 감소했다.

특히, 가축 사육 규모와 과수 생산량이 전국 최대로 한우우 사육마리수는 57만7000마리, 과실 생산량은 90만 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4.2%, 26.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은 국보 57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656점을 포함해 총 200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통계로 본 경북 10년 변화상'의 보다 상세한 자료는 경북도 통계포털 '경북의 통계'(http://stat.g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농식품부 차관,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경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추진상황 점검



경북도는 지난 24일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준원 차관은 김중수 농축산유통국장으로 부터 경북도 AI방역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지금까지 경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아직 발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제적인 AI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등 경북도가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안동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경북도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단방역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숨은 노고가 축산 농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하며,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고에서 AI차단방역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발생 시도 가금류 반입조치에 따른 지역 피해농가 지원대책 및 평시·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 차단방역 지원을 위한 생산자단체 내 가족방역팀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김용구 기자

관계 기관 간 공동협력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 박차

도-안동시-예천군-개발공사 신도시 조성 협력체계 구축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치안센터, 119안전센터)

경북도는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경북도, 안동시(신도시조성지원팀, 풍천면사무소), 예천군(도청이전지원단, 호명면사무소), 경북개발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발전 협력 회의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조성 초기 발생하는 교육, 주거,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을 위한 신도시 발전 촉진방안 등 폭넓고 다양한 제안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 협력과제는 총 53건(도 32건, 안동시 5건, 예천군 9건, 개발공사 7건)으로 이 중 단기과제 33건은 완료했고, 중장기 과제 20여 건은 내부검토 등을 거쳐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완료과제로는 △신도시 치안센터 및 119안전센터 사무실 근무공간 설치·운영 △도청 신도시, 안동·예천 이동 민원실을 도청 종합민원실 내 설치·운영 △도청 신도시 현수막 길에 설치 △대안직접조사 경북지사 이전에 따른 업무용지 변경 등 이다. 또한, △신도시 건축공사장 점검 및 환경정비 △직원 임시숙소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겨울철 강설대비 신도시 제설대책 △신도시 이주민

지원 사업비 지원 등 이다

추진 중인 과제로는 중장기 사업으로 △유관기관유치 △교통망 개선 △둘레길조성사업 등으로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신도시 유관기관유치'는 도·안동시·예천군·경북개발공사 간 협력으로 건축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주택분양 안내 등 유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도시 교통망 개선사업'은 신도시-916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국도 28호선-신도시 연결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동시, 예천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연장 68km로 12월 말 실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면 편입지역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며, △'신도시 주민등록이전'도 도청, 교육청 등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이전을 독려하는 등 도·안동시·예천군과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용구 기자

경북의 혼과 민족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 호국안보와 나라사랑정신 고취에

경상북도가 알장서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